

## ■ ( 정책 이슈 ) 2022.8.11.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 -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 개최 -

-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
  -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
-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최소한의 ‘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으며,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